

<2022년 4월 5일 화요일 새벽, 주 말씀>

1.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을 살아야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나니, 이는 평소에 하나님께 속하였기에 ‘영의 깊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니라.
2.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같이 사는 삶을 살 때 누구든지 즉시 그 삶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리니, 새롭게 거듭나게 되어 ‘영에 속한 신령한 자’가 되느니라.
3. 하나님과 성령님과 같이 살면 그 육도 영에 속한 자가 되어 ‘신령한 육의 삶’을 살게 되나니, 그러므로 육의 생각을 하지 않고 영의 생각을 하게 되느니라.
4. 하나님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차이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육으로는 사망의 생각과 어둠에 속한 생각을 하고 살게 되느니라.
5. 하나님과 성령님과 같이 사는 삶을 사는 자만이 이 시대 하나님의 창조 목적 사랑을 이룬 진실한 휴거의 영이 되느니라.
6. 우리가 지금껏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룬 삶을 살기 위함이었으니, 곧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와 같이 일체 되어 같이 사는 삶이니라.